

2009년 8차 이사회 열려

- 2009년 예산·결산, 2010년 사업계획 마련
- 아시아양봉대회 성공개최 방안 논의
- 양봉자조금 활성화 대책마련

지난 12일(화) 2009년 8차 이사회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배경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8차 이사회를 마지막으로 2009년을 마무리 짓고 다가온 2010년의 청사진을 그려 나갔다.

배경수 회장은 “작년 한해 동안 수고해 주신 임원진 여러분께 큰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양봉산업의 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며 임원진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올해는 2010아시아 양봉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나라 양봉산업이 한단계 발돋움하는 한해가 될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하나된 목소리를 나아가자. 우리 양봉인들의 저력을 보여주자”며 포부를 밝혔다.

안건으로는 가장 먼저 자조금 활성화 대책마련이 서두에 올랐다. 이에 임원진들 모두 한목소리

로 “이제는 생산자단체 스스로 자생하지 않으면 나아갈 길이 없다. 양봉산업도 자조금만이 살길이며 2010년 자조금 거출 활성화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오랜시간 논의하였다.

또한 협회는 올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0아시아 양봉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분과를 확대 구성하였다. 추가된 분과에는 등록/ 접수분과, 해외조직관리가 있다.

한편 조균환·오만균 부회장을 양봉농협 조상균 조합장과 함께 부위원장에 구성키로 결정하였다. 각 분과의 위원장과 위원에는 임원진과 지회장을 역할에 맞게 배정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양봉자조금 거출 조성 범이 올해도 계속되기 위해 작년 자조금 거출 실적이 좋은 광역시(1), 지회(2), 분회(2)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 경남지회, 경북지회, 산청분회, 영월분회로 각각 상패와 상금이 정기총회에

서 수여된다.

작년 한해 양봉산업을 힘들게 했던 제조꿀(가짜 꿀) 사용업체에 관한 제재 대책도 장시간 논의 되었다.

협회는 지난 7월 벌꿀자율표시제도 시행 전 제조꿀 근절을 위해 식약청에 꿀벌의 정의 및 규격 기준 규명과 인베르타제와 무설탕의 이력추적을 건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4개 업체가 적발되며 수 많은 양봉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임원진은 제조꿀이 양봉산업에 막대한 손실임을 강조하며 벌꿀자율표시제의 시범운영기간이 끝나는 2월에 관련기관, 업체, 소비자모임이 함께 모여 벌꿀규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규명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효자·효부상, 장학상 대상자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는 꽃샘식품이 협회회원 자녀 가운데 2010년 대학입학생 중 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희망을 주고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해 양봉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였다.

따라서 효자·효부상 3명과 장학생 1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고, 장학생의 경우 금액이 커짐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 반드시 2010년 입학생 가운데 선정키로 하였다. **양봉**



▲ 이사회 시작에 앞서



▲ 자조금 거출활성화에 장시간 논의중인 임원진들